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Vol
14

2020 Winter

CULTURE 동구

"품격있는 문화로 구민 함께 즐겁게"

DGCF 대구동구문화재단

CONTENTS

December 2020 vol. 14

발행처 대구동구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24
아양아트센터 체육관 3층)

발행인 이사장 배기철

발행일 2020. 12.

기획 · 편집 대구동구문화재단 편집실

담당 김민지(공연기획팀)
nabiya0105@naver.com

사진 이승국 외

편집위원 류종필, 이경진, 윤관대, 정원호, 이재민, 윤태훈, 한승엽

편집 디자인 희망정거장

03
여는 시
가난한 부자 – 우종구

04
2020팔공산예술인회
올해의 선정작가 초대전을 마치며....

06
2021신축년새해맞이전
미술 작품으로 전하는 새해 희망 메시지

08
전시리뷰
60년 외길,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10
겨울공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악 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

13
무형문화재
대구 동구의 무형문화재

16
아양 칼럼
길

17
클래식 이슈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18
공연리뷰
트리플 빌

20
도서관
코로나 19지만 괜찮아!
정보기록 매체의 변화 〈책의 역사〉

24
동구사람들
대구동구 노인종합복지관

26
동구명소
동촌유원지

28
12월&1월&2월
공연 · 전시 · 행사 현황표

31
코로나19

가난한 부자

우종구

그늘 깊은 언덕배기 달동네
비탈길 오르는 고단한 길섶
허리 굽은 가로등 늘 거기 서 있었네
눈발에 흐릿한 눈 껌뻑이며
깊은 밤 홀로 지샌다네

기별 없이 흔들어대는 문풍지
바람결도 무척 가난 하였다네
두런두런 긴 이야기 풀어내는
촉수 낮은 필라멘트 방 안
전구 같은 아이들 함께 살았다네

달셋방 부엌간에
기름기 흐르는 연탄 쟁이고
살찐 배추 김장 한 독이면
슬픔보다 더한 배고픔도
쉬이 한고비 넘긴다네

아랫목 나일론 이불 속
마흔 개 발가락들 포개어 살아도
아무도 슬프지 않았다네
바람이 문턱을 기어드는 살림살이
가난한 긴 겨울도 부자였다네

우종구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85)

– 전 경산하양초 교장
– 등단시인 / 2004년 월간문학

2020 팔공산예술인회 및 올해의 선정작가 초대전을 마치며....

팔공산 예술인들의 동촌 가을 나들이

전 시 명 : 2020 팔공산예술인회 및 올해의 선정작가 초대전
전시기간 : 2020. 11. 10.(화) ~ 11. 15.(일)
주 최 : (재)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주 관 : 팔공산예술인회
후 원 : 팔공산문화예술교육발전위원회
장 소 :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

정은기 조각가 약력

1941년 경북 김천시 봉산면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5회 (경북, 대구, 부산, 서울, 미국)

1980~현재 경북조각회전
2010~현재 팔공산 예술인회전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국현대미술 100인전' 초대
2012 아트경주 2012, 경주 야외전시장
2013 현대조각표현의 다양성전, 대구미술관
2014 대구미술 기억의 풍경전, 대구미술관 기획
2015 한국기독미술50년전, 미술세계 기획
2016 대구미술 아우르기전
2018 원로작가회고전,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2019 맥을 잇는 조각전, 경북대학교미술관
김윤수 선생 1주기 추모전, 가나아트

I.S.C 국제조각컨퍼런스 5회 참석 및 2회 발제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학장, 조형대학원장 역임
한국미술협회 대구지부장 역임
영남대학교 정년퇴임

1995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2006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2010 대구미술발전위원회 원로작가상
2014 제34회 대구시 문화상

팔공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시대의 문화유산, 그리고 현대식 문화공간들이 골짜기마다 잘 어우러져 대구 시민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2009년 팔공산 권역에 거주하는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결성한 순수예술 단체인 '팔공산예술인회(회장 문상직)'는 그동안 '올레길 속의 예술가 탐방', '똑똑, 예술가의 집을 두드리다', '팔공산예술인회 초대전' 등 팔공산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리고 팔공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있는 인사 18명이 2019년 결성한 '팔공산문화예술교육발전위원회(회장 박승국)'와 함께 팔공산이 문화와 예술, 교육 중심의 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범적인 예술 활동으로 회를 빛낸 회원에게 수여하는 '팔공산예술인회 올해의 작가상'을 제정하여 개인 초대전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조각가 '정은기(전 영남대학교 교수)'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기간에 아양갤러리 A관은 '팔공산예술인회원전', B관은 선정 작가인 조각가 '정은기 초대전'이 개최되어 팔공산에 거주하는 작가들과 지역민이 서로 소통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대구 동구의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기획 행사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화행정팀 **류종필**

“2020 팔공산예술인회 올해의 선정작가 **정은기** 조각가”

Artist's Note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업적, 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하늘로 솟아오를 때 ‘〈맘대로 절로〉 참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빈 탕 한데 맞혀놀이’인데 ‘빈탕’은 텅 빈 허공을 뜻하는 것으로 물질과 욕망을 태워 버렸으니 비고 없다는 것이고 ‘한데’는 막힘없이 크게 하나로 탁 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 사용하는 ‘하늘 놀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삶의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뭇가지로 하늘을 나는 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움직이는 조각입니다. 평론가 김영동씨는 이것을 보고 ‘새의 이미지를 붙잡고 초월과 영원성과 본향의 개념을 탐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호작질하며 천천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지나기가 아쉽다며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전시장의 이야기꾼이 되어 관객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되살릴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素岡 鄭恩基

미술 작품으로 전하는 새해 희망 메시지

「2021 辛丑年(신축년) 새해맞이 – 소(牛) 그림」展 준비 하며.....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는 지역 미술가들과 힘을 모아 연말과 연초에 새해 '띠'를 주제로 기획전을 열어 지역민들에게 미술 작품으로 새해 희망을 전해왔다.
새해맞이 전은 2009년(己丑年) 소띠 해에 시작돼 올해 13번째가 되었다.

그 동안 아양아트센터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문화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2층에서 1층으로 이전 확장된 아양갤러리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미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져 관람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에는 소(牛)가 주인공인 해이다. 소는 농경 사회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을 가졌던 가축이며, 부지런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우리 선조들에게 가장 사랑받던 동물이었다.
특히 불교에서 깨달음을 소와 비유해서 법당의 외벽에 그린 심우도(尋牛圖),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선산의 의우도(義牛圖) 이야기 등 다양한 전설과 속담 속에 등장하여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해맞이 전이 13년 동안 이어져 아양아트센터의 정기적인 기획 행사로 자리를 잡기까지 참가해 주신 작가 여러분과 언론사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행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한 해이길 바라본다.

부대행사로 '띠 주제 장신구 만들기', '감사 엽서 보내기' 행사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문화행정팀 **류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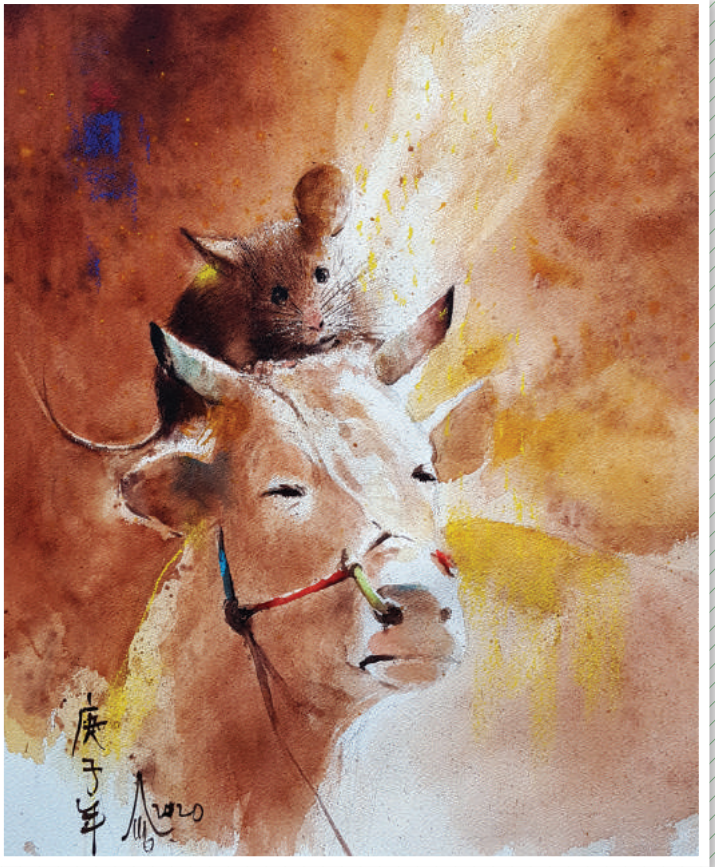
전 시 명 | 2021 辛丑年(신축년) 새해맞이 '소(牛) 그림'展
전시기간 | 12월 23일(수) ~ 2021년 1월 7일(목)
전시장소 | 아양갤러리 전관, 로비갤러리

주 최 | (재)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
홈페이지 | www.ayangarts.or.kr
문 의 처 | 053)230-3312

소는 온화한 성격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우리 선조들에게
가장 사랑받던 동물

▶ 양진호작. 소(牛)

▶ 조명래작. 동행



▶ 김상용작. 동행

▶ 홍성문작. 구름의 노래

60년 외길,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 소목장 유산 엄태조 초대 展을 마치며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는 60여 년 나무와 인연을 맺고 소목장으로 살아온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유산(幽山) 엄태조 초대 展'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엄태조 선생은 평생을 투철한 장인(匠人) 정신으로 전통 목공예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헌이 인정되어 201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으로 지정된 우리 시대의 거장이며 우리 동구의 보물이신 분이다.
목수는 크게 대목장(大木匠)과 소목장(小木匠)으로 나누는데, 대목장은 건축물을 짓고, 소목장은 건축물에 들어갈 가구를 만드는 목수를 뜻하는 말이다. 태조 선생은 소목장으로 60여 년 나무 선별과 제재부터 마지막 단계인 옻칠까지 전통제작 기법으로 다양한 가구를 만들어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특히 작품 제작뿐만이 아니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용문사 대웅전' 등 많은 국가지정 보물과 문화재 보수 활동으로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섰으며, 2006년 '동구목공예회관' 건립과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을 발족 시켜 지역 전통공예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초대전에는 머릿장, 법상, 이층농, 장롱소반, 찻상, 혼수함, 숭숭이반닫이, 강화반닫이, 문갑, 경상, 경대 등 선생의 작품 60여 점과 가구설계도, 가구제작용 본, 공구 등 소장하고 있던 전통 목공예 관련 자료들도 함께 전시하여 지역민들이 우리나라 목공예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을 코로나19 관련으로 지역의 초 · 중 · 고 학생들과 목공예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함께 못한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유산 엄태조 선생님과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화행정팀 **류종필**

▸ 전시장면

전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유산(幽山) 엄태조 초대」展
전시기간 ▸ 10월 14일(수) ~ 10월 20일(화)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
장 소 ▸ 아양갤러리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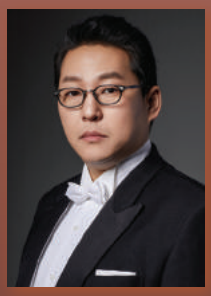
지휘자 정치용과 함께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NEW WORLD CLASSIC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드디어 2021년 1월에 대구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의 첫 달인 1월에 진행되는 연주인 만큼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찰 예정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창단되어 연 120회 이상 연주하는 국내 최정상의 교향악단이다.
1987년부터 국립극장 전속 오케스트라로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정규 레퍼토리에 참여하였으며 2001년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지정되어 교향악, 국립예술단체와의 연주, 예술의전당 기획 연주 등 현재까지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수교 기념음악회 등 다수의 해외 초청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오케스트라 기량과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신진 예술가를 위해 젊은 지휘자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넥스트 스테이지'와 상주작곡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데카 레이블로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하여 미국 브루크너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정치용 예술감독의 지휘로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이 데카 레이블로 발매되었다.
현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오케스트라로서 2018년 1월 정치용 지휘자가 제6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교향악 레퍼토리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창작음악 활성화에 힘쓰며 교향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NEW WORLD CLASSIC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국내 최정상의 연주자들이 함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노버 요하임 국제 콩쿠르 우승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한국 클래식계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강혜정(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동양인 최초 주역 데뷔의 테너 신상근(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 함께 해 교향곡부터 한국 가곡, 오페라 서곡,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주는 문예회관이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관객들에게 그동안의 위안과 신년을 맞이한 기쁨을 동시에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단체인 만큼 함께 모여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보자.

>> 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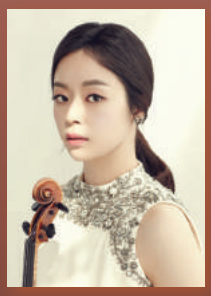
일　　시 | 1월 15일(금) 19:30
장　　소 |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주　　최 | (재)대구동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　　관 | (재)대구동구문화재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관 람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053-230-3311/3319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강혜정



바이올린 김다미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은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품격 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5세에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고 서울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 거장 미하엘 길렌으로부터 본격적인 지휘수업을 받았다.

유학시절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이 주최하는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 세계 악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졸업과 동시 오스트리아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잘츠부르크 국제여름음악제 부지휘자를 거쳐 라이프치히 방송교향악단, 뮌헨 심포니, 미시간 스테이트 심포니,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하며 경력을 쌓았고, 귀국 후 관현악곡 및 오페라,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공연 등 음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정치용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작품의 국내 초연을 가장 많이 한 지휘자로도 유명하다. 관현악 〈교향곡 제1번〉, 〈화염 속의 천사〉, 오페라 〈류퉁의 꿈〉, 〈나비의 미망인〉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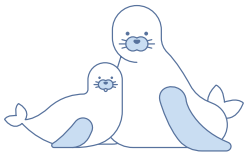
그는 오페라 지휘에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여 〈호프만의 이야기〉,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돈파스콸레〉, 〈루치아〉, 〈리골레토〉, 〈라보엠〉, 〈카르멘〉 등을 지휘했고, 〈행주치마 전사들(임긍수 작곡)〉, 〈백범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이동훈 작곡)〉, 〈메밀꽃 필 무렵(김현옥 작곡)〉, 〈천생연분(임준희 작곡)〉 등을 초연했으며 특히 2007년에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 기획한 알반 베르크의 오페라 〈보체크〉를 국내 초연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상, 제5회 김수근 문화상 공연예술상, 제3회 문화관광부 선정 젊은 예술가상, 제3회 뮤지컬 대상 음악상, 한국음악상 본상 및 제28회 음악평론가협회 제정 서울 음악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정치용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지휘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공연기획팀 **박수민**

지휘자 정치용

수능 끝나고 이 공연 어때요?
12월 국악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



지난 11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취소 되었던 국악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가 오는 12월에 드디어 진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상황을 구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이번 공연을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관객 없는 공연을 진행, 생방송으로 현장감 있게 즐기고 싶은 관객들을 위하여 아양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스트리밍을 진행할 예정이다.
낭독극'소녀, 강치를 만나다'는 지금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춘기 소녀'아라'가 친구가 되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부는 낭독극에 등장하는 악기 이야기로 꾸며진다.
연주자들이 직접 우리 국악기를 연주하며 악기의 재질과 음색의 특징을 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시간으로 익숙하지 않은 국악기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부는 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로 진행된다.
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인 윤주미가 연출과 각본을 맡았으며 낭독에 소리꾼 곽미정 씨와 청소년 뮤지컬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은서(양덕중2) 양이 함께한다.
한편 (주)아트플럿폼 한터울이 낭독극과 어울리는 연주를 선보이며 낭독의 아름다움을 더할 예정이다.

'소녀, 강치를 만나다'는 여름방학을 맞아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울릉도에 있는 할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소녀'아라'의 이야기다. 아라는 방학 동안 할머니와 지내기 위해 울릉도로 들어간다. 아라는 어쩌면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할머니는 그런 아라가 걱정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지금은 사라진 독도 강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치는 일본인들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지금은 멸종돼 만나볼 수 없게 됐다.
일제 식민 치하 때, 일본인 어부들은 돈이 되는 강치를 마구 포획했다.
그들은 어미 강치를 잡기 위해 어린 강치를 잡아 어미 강치를 유인하고, 어린 강치는 서커스 단에 팔아넘겼으며 어미 강치는 산 채로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짰다.
할머니의 독도 강치 이야기를 듣다 잠이 든 아라는 꿈에서 강치를 만난다.
꿈에서 만난 강치는 부모와 친구를 모두 잃고 홀로 독도 가재 바위를 지키고 있었다. 강치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라에게"그래도 너에게는 너를 걱정해 주는 부모님과 할머니, 친구들이 있지 않냐"라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라는 강치의 그 말에 위로를 받고,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강치에게"자신이 매 여름 이곳에서 기다릴 테니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한다.
꿈에서 만난 강치와 친구가 된 아라는 자신을 이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머니에게도 마음의 문을 연다.
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는 지역성 짙은 이야기와 함께 극을 이끌어가는 음악이 국악으로 구성돼 전통성과 함께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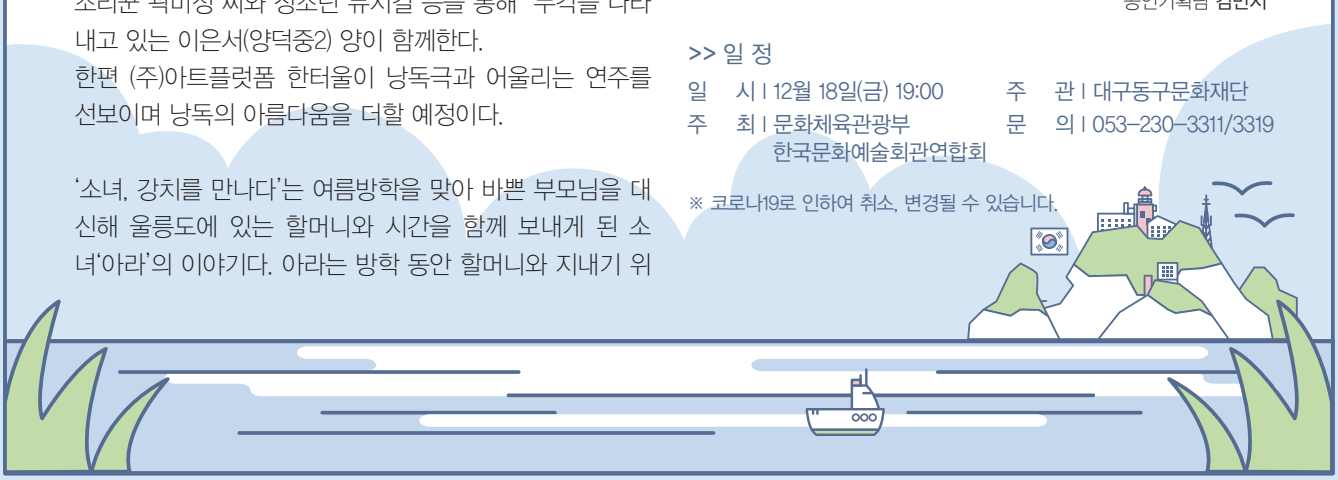
우리 국악기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는 외로운 아라와 강치의 마음에 닿으며 그들뿐만이 아닌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기 충분한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기획팀 **김민지**

>> 일 정

일 시 | 12월 18일(금) 19:00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 관 | 대구동구문화재단
문 의 | 053-230-3311/3319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무형문화재** 어떤 분들이 숨어 계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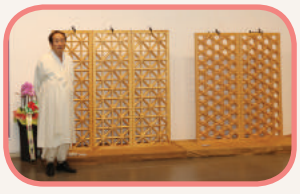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유산정보'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지역 무형문화재'에 대구 동구 지역을 검색하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소목장(小木匠) 엄태조, 시도무형문화재로 는 가곡(歌曲) 권측이, 살풀이춤 권명화, 공산농요 송문창, 창호장 이종한님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동구지역에 거주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알리는 예술가들이다. 한 때 우리나라 목공예품 생산의 80%가 바로 동구 팔공목공예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구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곡(歌曲) **권측이** (대구시무형문화재 5호) 1989.06.15. 지정

가곡은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으로, '삭대엽(數大葉)'또는 '노래'라고도 한다. 가곡은 시조시 한 편을 5장 형식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전주곡인 대여음과 간주곡인 중여음을 넣어서 대여음, 1장, 2장, 3장, 중여음, 4장, 5장순으로 반복한다. 매우 조직적이며 짜임새가 잘 되어 있다. 장단을 보면 느린 속도의 16박자와 '편장단'인 빠른 속도의 10박자가 있다. 연주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 대금, 단소, 장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곡은 한국 3대 성악곡 중의 하나로, 판소리와 범패(梵唄:부처님 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는 대중적인데 비하여 가곡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온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이다. 대구에 사는 권측이 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영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가곡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추측된다. 권측이 선생은 1954년(22세) 김천 금릉군에서 대구 남산동으로 피난 오면서 박지홍, 정무산, 박창현 선생으로부터 시조창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 정경태, 유종구 선생에게 가곡, 시조, 가사 등을 사사받았고 1989년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5호(가곡)로 지정되었다. 선생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구, 영남지역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고, 정경태, 유종구 선생의 맥을 이은 반계이지만 정통 가곡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대로 된 노래라는 평을 받고 있다.

창호장(窓戶匠) **이종한** (대구시무형문화재 17호) 2012.01.30. 지정

전통 창호의 개념은 조선시대 나무관련 장색(匠色)중에서 대목(大木)과 소목(小木)으로 구별하여, 다시 소목 중에서 농, 장, 궤, 함 등 생활도구를 제작하는 소목장(전통가구)과 창호, 공포(木共包), 난간 과 닫집, 장엄장식 등을 담당하는 소목장(건축소목)이 각각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단절되고 사라져 가구와 창호 장인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건축의장(建築意匠)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궁궐건축의 경우는 벽면의 거의 대부분을 창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창호는 건축의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전통창호의 제작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숙련된 창호장이 필요하다. 창호장은 소목장으로 분류하는데 대목이 건축의 구조 부분을 담당한다면 소목은 수장과 장식 부분을 담당한다.
창호장(窓戶匠)은 대목이 할 수 없는 섬세함과 세밀함으로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세밀한 이음과 맞춤, 정확한 비례의 구성은 오랜 숙련을 통해 창호장만이 가능한 것이며 장비와 목재의 사용에서부터 대목과 다르다. 꽃살문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장 평범한 살대와 문얼굴도 면접기와 모접기를 비롯해 투밀이와 등밀이 등에 정밀한 기법이 필요하다. 보유자인 이종한 선생은 1963년부터 창호제작에 종사하면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 수미단 및 상주 수암종택 창호 보수 등에 참여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다. 전통 건축에서 필수적인 창문을 제작하는 창호장(窓戶匠)은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수익성이 낮아 전승하고자 하는 후학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종한 선생의 장인정신이 높이 재평가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 건축에도 우수한 전통건축 기술을 다방면으로 접목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전통문화 계승자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대경팔공공예협동조합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목장 엄태조 명장을 비롯해 창호장인, 목기장인, 칠기장인, 천연염색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실력을 지닌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소개하는 (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가 있다. 그리고 매년 '무형문화재제전(無形文化財祭典)'을 열어 책자를 통해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소개하고 활동을 알리고 있다. 『2017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제전』에는 대구시가 지정한 19명의 무형문화재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약 1/5에 해당하는 4명의 무형문화재가 바로 동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오던 동구로서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오늘의 우리들이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이 부끄러울 따름이고 감사할 뿐이다.
자, 그럼 대구 동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전통예술계의 무형문화재들을 소개해드린다.

살풀이춤 **권명화**

(대구시무형문화재 9호) 1995.05.12. 지정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해의 나쁜 운을 풀기 위해 굿판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무당이 즉흥적으로 나쁜 기운을 푸는 춤을 춘 것을 살풀이춤이라 하며, 도살풀이춤 · 허튼춤 · 입춤 · 수건춤 · 즉 흥무(卽興舞)라고도 한다.
춤꾼은 고운 쪽머리에 비녀를 꽂고 백색의 치마저고리를 입으며, 멋스러움과 감정 확대를 위해 하얀 수건을 든다. 살풀이장단에 시 나위를 연주하되 피리, 대금, 장구, 아쟁, 북 등의 반주로서 춤을 춘다. 살풀이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남도무속무용 계열의 춤으로 권명화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살풀이춤은 늦은 굿거리를 통해 고통으로 시작되는 인생의 첫 출발로 시작한다. 춤사위 하나하나에 슬픔과 한을 모아 풀어내 는 춤, 살풀이춤! 그 살풀이를 춤으로 인생으로 이어온 이가 바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권명화 선생이다. 권명화 선생은 대동권번에서 춤을 가르치던 박지홍에게 살풀이춤을 전수받아 영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박지홍의 춤맥을 따르고 있는 선생은 살풀이춤 이외에도 입춤, 승무, 검무, 소고무를 전수받았다. 대구 살풀이춤은 경상도 특유의 춤사위에서 비롯된다.
권명화의 살풀이춤은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담긴 일상생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수건을 던지고, 감고, 풀고, 돌림으로써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많은 잔가락보다는 투박하면서도 단순 한 디딤새로 인간 감정의 본연인 희, 노, 애, 락을 나타내고, 팔 동작에서는 흰 수건을 오른팔, 왼팔로 옮겨가면서 감으면 풀고, 풀면 감고하는 동작과 큰 원을 그리고 위로 뿌리는 동작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공산농요 **송문창**

(대구시무형문화재 7호)1990.05.15. 지정

농요는 토속 민요의 하나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 해 부르는 노래로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공산농요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동 일대에서 전승된 농업노동요이다. 원래 이 지역은 팔공산 기슭의 넓은 들판에 문전옥답을 끼 고 논농사를 주로 하던 마을들이었다.
공산농요는 사설을 고로(古老)들의 기억을 더듬어 복원한 후에 뛰어난 선소리꾼을 찾아 재현하게 되었다. 먼저 선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면 농부들이 받아서 뒷소리를 받아 부르는 문답창(問答唱)형식이다. 내용은 어사용(나무꾼노래) · 망깨노래 · 도리깨 · 타작노래 · 모찌기노래 · 모심기노래 · 논매기노래 · 벼베기노래 등으로 되어 있다.
어사용 노래는 나무를 베거나 풀 벨 때 부르는 노래이고, 모찌기는 모를 찌으면서, 모심기는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노래이다. 논매기는 논을 매면서, 벼 베기는 벼를 베면서 부른 노래이다. 모찌기노래와 모심기노래에는 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 이며, 특히 세벌 논매기 때는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뒤에서 사 설을 엮어나가면, 앞에서 논매기하는 사람들이 뒷소리로 "예이 ~ 예이요 오호 ~ 야 오 오 오이 ~ 사하 하 ~ ~ ~ 예이요 ~ 호이 후후 후후요~"의 후렴으로 받는 노래다. 노래는 종류마다 가락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어사용 노래와 벼 베기 노래는 같은 가락이다. 현재 두레 · 품앗이 등은 사라지고 노래만 전해지고 있다.
공산농요는 소박한 농민들의 슬픔과 기쁨이 어린 향토색을 지닌 민요로 전승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대구에 살고 있는 예능보유자 송문창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소목장(小木匠) **엄태조**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5호

유산 엄태조(幽山 嚴泰祚 : 1944 ~) 선생은 문화재청에서 2014년 7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小木匠)'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소목장이란 목가구(장롱 · 궤 · 경대 · 책상 · 문갑 등), 창호, 목기를 제작하는 목수를 말하며 기록상으로 보면 고려 시대부터 그 명칭이 사용되었다.

유산 선생은 1960년대 대구 동구 불로동에 공방을 마련하여 50여 년간 소목 가구 제작에 종사해 오면서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전통가구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나무의 선별과 정밀한 사개귀짜, 연귀짜임, 마대짜임 등 전통 짜맞춤기, 상감 기법, 옻칠 등 전통가구 제작기법의 전반에 능통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익히고 배운 나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하여 많은 중요 문화재 복원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선생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면,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보관소 판가(板架:팔만대장경을 받치고 있는 마루)가 오랜 기간 무거운 대장경을 받치고 있다 보니 중앙 부분이 아래쪽으로 휘어 쳐진 곳이 있어 보수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가장 많은 의견이 휘어진 판가를 너도밤나무나 단풍나무로 교체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때 선생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 휘어진 마루를 반대(상하좌우)로 돌려놓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한다. 즉 처진 부분을 하늘로 향하게 놓으면 일이 년이 지나 대장경의 무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평이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해 그렇게 보수를 하였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처럼 선생의 말대로 마루가 수평을 되찾았다고 한다.

위 일화는 이론만 공부해서 알 수 없는, 몸소 체험하여 터득한 소중한 지혜가 쌓여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가 선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가끔 유산 선생을 만나서 목공예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소목장일 뿐만이 아니라 대들보 설치 방법, 창문을 내는 방법 등 문화재 보수에 직접 참석하여 배우고 익힌 다양한 분야의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전문적으로 후학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늘 아쉬워하며 1990년대 '대구전통문화전승회관'을 건립하려다 실패한 것이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8개 광역시 중 '전통문화전승회관'이 없는 지역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구광역시다.

▲ 밀양 반닫이. 괴목

동구문화재단 **편집실**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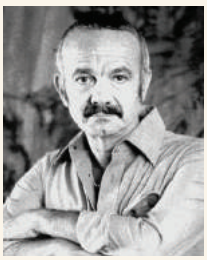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여러 종류의 길을 만나게 된다.
그 길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내 마음 속의 길이든, 언제 어디서든 밖을 나서면 만날 수 있는 길이든 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가끔 길을 걸으면서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곤 한다.예전 어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나도 익히 잘 아는 어느 역사 속의 인물도 사연을 담고 걸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들어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 · 문화유산을 그저 보존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광 또는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올라가는 팔공산에는 1천여 년 전 일대에서 고려 건국을 꿈꾸던 태조 왕건과 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견제하던 후백제의 견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다. 그 때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팔공산 곳곳에 역사의 발자취와 이야기를 간직한 왕건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당시 왕건의 전투 흔적을 따라 용호상박길, 열린하늘길, 호연지기길 등 모두 8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팔공산의 아름다움과 선조들과 역사적 교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인지 팔공산 왕건길은 그저 산책하기 좋은 길이라는 느낌보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길이라 더욱 흥미롭게 걸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내가 무심코 지나가던 길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더욱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역사 ·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나 스토리텔링으로 꾸며진 축제를 활용하여 역사문화 관광 상품화를 꾀한다면 지역 상권 및 주민들의 일상에도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 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의 관광 기능 역량 개발과 관광객 유입 증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길이 현재 문화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 한 분야의 특정 인물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월이 흐른 뒤 언젠가 지금의 역사 · 문화자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시 · 공간을 초월한 소중한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연기획팀 **김민지**

아르헨티나의 반도네온 연주자 겸 탱고 작곡가 피아졸라(Astor Pantaleón Piazzolla / 1921~1992) 탄생 100주년



1921년 3월 1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마르델플라타에서 이발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25년 그의 가족은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열살 때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혼자 레코드를 들으며 스스로 음악을 익혔다. 여덟 살 때 아버지가 전당포에서 반도네온을 사준 것이 반도네온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각종 라디오 연주회에 출연해 반도네온으로 고전음악을 연주하였고, 1933년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제자였던 헝가리 출신의 벨라 빌다(Bela Wilda)에게 음악 레슨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에게서 반도네온으로 바흐의 곡을 연주하는 법을 익혔다.

피아졸라는 1934년에 탱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을 만났는데 그는 피아졸라를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시키기도 했고 순회공연에 합류시키기도 했다. 1936년부터 피아졸라는 다양한 탱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경험을 쌓았다.

1937년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뒤,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두루 가르침을 받았다. 1954년 파리로 건너간 피아졸라는 나디아 불랑제를 스승으로 만나는데 이는 그의 음악 경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블랑제는 피아졸라의 진정한 재능은 탱고 음악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탱고와 반도네온 음악을 포기하고 클래식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려던 피아졸라에게 탱고곡을 쓰도록 독려하였다. 피아졸라는 블랑제에게 대위법을 비롯한 클래식 작곡을 배웠는데 그 이후 대위법은 피아졸라 탱고 작법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는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파리 오페라단의 현악 오케스트라와 자신이 작곡한 탱고곡 시리즈를 음반으로 발표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다.

1955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밴드를 결성하고 작곡과 연주에 힘쓰던 중 전통적인 탱고음악에 식상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1958년 뉴욕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1960년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중주단(Quinteto Nuevo Tango)을 결성하였다. 이때부터 피아졸라는 자신의 탱고를 새로운 탱고, 즉 누에보 탱고로 부르며 기존의 탱고와는 다른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다. 1974년 유럽으로 건너가 10년간 파리 · 암스테르담 · 빈은 물론, 뉴욕 · 도쿄 등 세계 각국을 오가며 자신의 음악을 널리 알렸다. 이 시기는 유럽에서 탱고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때로 피아졸라의 새로운 탱고 역시 클래식 음악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1992년 크로노스 4중주단이 발표한 피아졸라의 작품집《다섯 개의 탱고 센세이션 Five Tango Sensation》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피아졸라를 '탱고의 황제'로 끌어올렸다.

피아졸라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로 탱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피아졸라는 협주곡, 오페라, 영화음악 등을 망라하는 750여 곡의 반도네온곡을 작곡하였고 70여 개의 음반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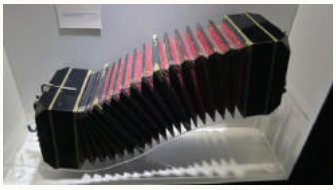
탱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연주의 거장으로, 일명 '탱고의 전설'로 통한다. 1990년 파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1992년 7월 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타계하였다.

1995년 피아졸라의 가족들이 그를 대신하여 아르헨티나의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에게 주는 코넥스 어워드(Konex Award)를 수상하였다.

출처_ [네이버 지식백과]아스토르 피아졸라 (두산백과)

반도네온(Bandoneon)

아르헨티나 탱고의 대표적 악기 반도네온은 1830년경 독일에서 고안된 아코디언과 같은 족의 악기이다. 네모난 모양의 긴 주름상자의 양 끝에 단추식의 건반을 갖추고, 손목을 통해 악기를 떠받치는 가죽 밴드가 달려 있다. 오른손의 건반은 고음부, 왼쪽은 저음부의 음을 내고, 오른쪽 건반(옆에 공기구멍과 개폐판(開 閉 瓣)을 조작하는 금속제의 레버가 있다. 오른쪽 손 38건, 왼쪽 손 33건으로 142음을 내고, 레가토 주법과 함께 아코디언으로는 낼 수 없는 날카로운 스타카토 연주가 가능하다. 깊은 맛이 나는 매력적인 음색으로 볼륨도 있으며, 1880년경 탱고 밴드에 도입되어 탱고 연주 그 자체에 변화를 주고, 1910년경에는 반도네온이 피아노, 바이올린과 함께 탱고의 주역 악기로서 표준화되고 이른바 오르케스타 티피카의 형을 만들었다.



〈피아졸라가 사용하던 반도네온〉

LDP(Laboratory Dance Project)의 트리플 빌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무용단 중의 하나이기도 한 무용단이다.
일단 잘 춘다. 무용단이 춤을 잘 춘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마는
어느 예술 공연이든 그렇겠지만 무용 공연이라는 것이 그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조화가 중요하다 보니 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서 안무가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아양아트센터에서도 그런 점에 착안하여 매년 신인 안무가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신인들의 작품이 다소 부족하든 기대 이상이든 나는 이 공연이 꼭 필요한 공연이라 여기고 있다. 지역의 안무가를 육성하는 것이 공연장의 고유한 임무는 아니지만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잠시 다른 얘기로 흘러 갔는데 LDP 단원들은 다른 무용단들에 비해 개성이 강하다. 이번 트리플 빌을 보며 그 생각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 이는 아마도 단원들의 의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데 익숙하며, 이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그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번 공연은 무대와 방송을 장악하며 현대무용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안무가 김설진의 〈MARRAM〉, 신체가 가진 섬세한 움직임을 집요하게 탐구하고 정제시켜 자기만의 춤 언어로 구축해 내는 독창적인 안무가 정영두의 〈새벽〉, LDP의 대표이자 안무가로 LDP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안무가 김동규의 〈MOMBURIM〉 총 세 작품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안무가 김설진**은 2014년 케이블 방송 엠넷(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 시즌2〉에서 우승하며 대중문화계에 현대무용 신드롬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MARRAM〉은 그의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매우 흡족한 공연이었다. 물론 호불호는 갈릴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안무가 노트에 걸맞게 의자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부서지기도 하고 켜켜이 쌓여가기도 하는 두서없는 기억들의 조각을 잘 표현해 주었다.
와르르 무너지고 집어던질 때는 내 마음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두 번째 순서는 **안무가 정영두**의 〈새벽〉이다. 새벽은 밤보다도 고요하고 더 아득하다. 움직임이 많지는 않으나 그 속에 내포된 에너지와 의미가 고스란히 잘 전해진다. 젊은 무용수들에게 절제가 무엇인지, 여백의 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색다른 작품인 듯하다.

마지막 순서인 **안무가 김동규**의 〈MOMBURIM〉 트리플 빌 중에 가장 현대무용 다운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뛰어난 테크닉을 구사하는 작품으로 시원시원한 군무가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든다.
안무가 김동규는 사실 LDP 무용단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LDP 무용수들을 하나로 응집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리더십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어 주었다. 젊은 무용수의 몸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내버려 두는 자유로운 작품이지만 그 속에서 잘 계산 된 동선과 체계적인 몸짓은 묘한 긴장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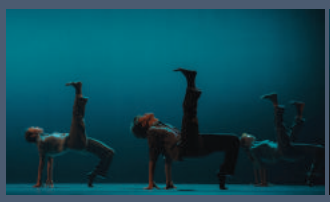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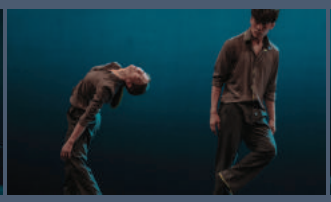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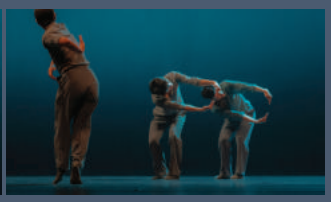
공연기획팀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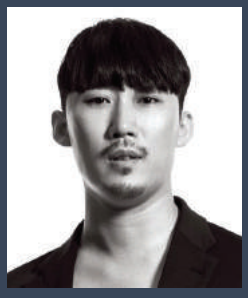
MARRAM – 안무 김설진

두서없는 이미지 조각들의 나열.
그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기억을 편집한다. '편집된 기억'들은 '연가시'처럼 내 안 어딘가 자리하고 '죽은 상태로 살아있게' 된다. 불편한 선택들로 쉽게 단정 짓고 판단되는 '오해의 홍수' 속에서 껍질이 깨지는 순간을 만끽할 삶이 우리에겐 충분한가. 기억은 불안정하다. 그것은 무수한 망각이며 오류가 난무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기억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작품은 불완전한 관계, 편집된 기억(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는 타인은 어떤 모습으로 숨 쉬고 있을까.

새벽 – 안무 정영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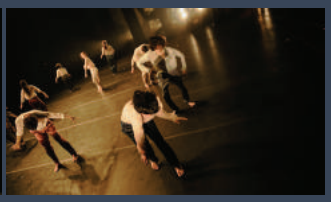
서로 배어드는 어둠과 빛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두근거린다. 차가운 공기가 부풀어 오를 때 숨어있던 감정들도 함께 부풀어 오른다. 아직 어제를 배웅할 자신도 없는데 오늘은 어서 마중을 나오라 한다. 조금 더 어두운 것과 조금 덜 어두운 것들 사이로 후회와 기대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나와 나 아닌 것들이 쫓고 쫓긴다. 새벽, 은밀하고 신비스럽게 퍼져가는 푸른빛을 보면 마음은 이미 고요한 흥분으로 일렁인다.



MOMBURIM – 안무 김동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춤을 출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 움직임에 많은 의미를 두면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건 아닐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찰나에 느껴지는 자유. 내면의 꿈틀거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집중해본다.
제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움직임의 이유를 발견한다.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가락부터 시작된 움직임은 점점 확장된다. 몸의 자유가 한껏 흥을 이루고 몸부림을 만든다. 작은 시작부터 최대한의 에너지를 내기까지 일어나는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19지만 괜찮아!

비대면 소통으로 진화한 독서생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온 지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격리 등의 고립상태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예컨대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어쩌면 '코로나 블루' 현상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가 우리에게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다시금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놓치지 말라. 재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

– 미래학자 게르트 레온하르트

물리적 단절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남은 식재료 판매를 위한 계정이 늘고, SNS 국민 참여형 릴레이를 통해 코로나로 애쓰시는 의료진, 소방관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하며, 감자 판매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농가를 살리는 운동 등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SNS의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수어_'존경'

#의료진 덕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수어_'자부심'

그 외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홈쿡족(집에서 요리하는 사람)과 홈트족(집에서 운동하는 사람), 홈 카페(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4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1,000번 저어 만드는 계란 프라이 수플레, 대파 키우기 등 직접 손으로 만들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DIY 아이템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적 공간과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나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따르면 2021년에는 '개인의 정체성 찾기' 욕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힐링 관련 인기도서 키워드 분석 - 힐링관련 인기대출도서 상위 10위 대상

출처 : 도서관 정보나루

독서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문화 · 여가활동이 아닐까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보 나루'**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공 도서관 인기 대출도서 10위 대상의 키워드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 관련 책을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 나루' 는 전국 공공 도서관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 줍니다. 연령, 성별, 대출도서 등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관 도서를 제안해 주고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는지, 독서 트렌드는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어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독서 통합포털 페이지 **'독서IN'**도 다양한 도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서문화 관련 행사, 축제 등의 일정을 검색할 수 있는 독서IN 캘린더, 월 1회 독서 · 인문분야 전문가가 정한 도서에 대한 칼럼을 공유하는 독서카페, 독서 뉴스레터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셔서 독서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도 코로나19로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휴관과 재개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구 동구 도서관은 새로운 역할과 운영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강좌, 독서 지원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새로운 독서환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동구 도서관 온라인 독서회 **'읽고 나누다'**는 집에서 책을 읽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감상문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같은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댓글로 토론의 장을 펼쳐 독서 연결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책 읽기의 흔적〉, 어린이 대상 〈이야기 모꼬지〉로 구성되어 동구 도서관 회원이라면 로그인 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감상문을 업로드한 모든 분께는 도서반납 연체 시 사면의 기회를 주고, 특별히 도서를 1권 더 대출할 수 있는 쿠폰도 증정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마루 바로가기

독서IN 바로가기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가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막지만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심도서관 사서 **김선경**

정보기록 매체의 변화 〈책의 역사〉

역사와 선사의 구분 방법은 '문자'의 사용 유무이다. 신석기, 구석기 시대와 같은 선사시대를 거친 후 인류는 '문자'를 통해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의 욕구는 흙과 동물의 뼈, 가죽에 이어 종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종이책은 1440년대 정도부터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형태의 '책'이 존재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책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 번 알아보자.

• 수메르 설형문자와 점토판(BC 4000년)

수메르인은 비옥한 토지에서 수확한 곡물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형문자를 사용했다.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간략하게 각사하는 방식으로 여러 모양을 기호화하고 점토에 새겼다.

• 고대중국의 갑골문(BC 2000년경)

소뼈와 거북이 등껍질을 활용했으며 제사, 정벌, 등 주요 국사에 대한 신의를 묻는 점을 기록한 것이 갑골문자다. 황화 문명에서 등장한 갑골문자는 한자의 원형으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문자이기도 하다.

• 종이의 어원, 파피루스(BC 3500년경)

이집트 나일강의 습지에서 자라는 2M가 넘는 긴 갈대를 엮어 문자를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들었다. 점토판이나 나무판보다 훨씬 가볍고 실용적인 파피루스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다.

• 소아시아 페르가몬 양피지(BC 150년경)

BC 150년경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꿈꾸던 프톨레미 5세는 페르가몬 왕립 도서관이 더 융성해지는 것을 우려해 페르가몬에 대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 이에 페르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는 대체 매체로 양, 염소, 송아지 등의 가죽을 이용하여 양피지를 개발하였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내구성과 보존성이 좋아 오랜 세월 동안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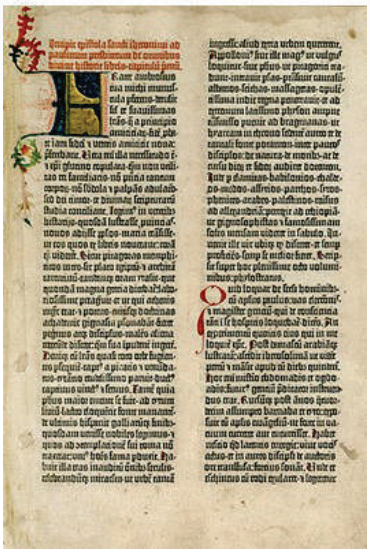
• 채륜이 인류에게 준 선물 종이(105년)

인류 최초의 종이는 105년 채륜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그는 수피, 마, 무명조각, 어망 등을 혼합하여 종이를 만들었으며 3~4세기경 죽간목독을 대체하고 5~6세기경 범용화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소수림왕(372년) 때 불교와 함께 제지법이 도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고구려 영양왕 때 승려 담징에 의해 일본에 전파되었다.

• 세계최초의 금속활자(1240년대)

고려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되었고, 1455년에 인쇄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무려 80년이나 앞선 귀중한 자료다.

•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1440년대)



서양에서 최초로 활판인쇄술을 개발한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이용해 처음으로 '42행 성서'를 인쇄하였다. "금속활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했지만, 인류 문화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독일의 금속활자이다." 이 말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고어(Gore)가 1997년 베를린에서 열린 G7 회담서 말한 내용이다. 이처럼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은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 산업혁명 = 출판혁명(1810년대)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 인쇄기는 35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때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영국의 스탠호프는 1811년 외연기관을 사용한 최초의 철제 인쇄기를 발명한다. 산업혁명을 통해 개발된 인쇄기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인쇄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 기계식 인쇄기의 확산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많은 양의 책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자책(1980년대)

컴퓨터 시장 초창기에 문자를 디지털의 형태로 저장하여 열람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휴대할 수 있게 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

이렇게 책은 간단한 기록에서부터 전자책까지 많은 형태적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향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책'을 만날 수도 있다.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 도서관은 종이책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천도서관 사서 **안준규**

대구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전경

마음방역키트 전달

사랑의 도시락 전달 사업

Q.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10월 3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대구 동구지역 최초의 노인복지관이죠. 또한 개관 당시 설립자이신 박병립 대표이사님 내외분께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였고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노인대학사업과 사회교육사업 및 가정봉사원파견사업(밑반찬배달, 가정봉사원파견)으로 교육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복지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햇수로 21년차인 노인복지관이며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복지관평가에서 15년째 최우수 'A' 등급을 받아오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동구청에서 실시한 성과평과에서 최우수 'S' 등급을 받아 동구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Q. 주력 사업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대학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지역연계사업, 조사 · 교육 홍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노인대학사업** – 2000년도 3월부터 시작된 노인대학사업은 평생교육과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적합한 노인여가문화를 선도하고자 예능교육, 취미적성교육, 건강증진교육,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사회교육사업** – 어학교육, 정보화교육, 예술 · 체육교육, 교양교육이 주를 이루는 사업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학습발표회, 작품발표회, 사회교육 기량 뽐내기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노인상을 구현하고 노인문제를 예방하고자 행복나눔이파견사업, 복지지킴이파견사업, 주차도우미파견사업, 지역클린도우미파견사업, 몰카안심도우미파견사업, 어르신강사파견사업, 신바람강사파견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④ **경로당활성화사업** – 관내 70여 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이 가진 지역사회 내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⑤ **사회참여지원사업** –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존경받는 노후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우름봉사단, 징검다리봉사단, 재능나눔봉사단, 가정지킴이봉사단, 독거노인마음잇기봉사단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⑥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지원, 밑반찬지원, 정서지원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⑦ **건강증진사업** – 물리치료서비스, 체력단련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정서생활지원사업** – 복지관 이용상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법률상담등의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⑨ **복지후생사업** – 경로식당 및 셔틀버스, 여가실 등을 운영하여 통해 복지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⑩ **지역연계사업** – 지역사회 내 인적 · 물적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⑪ **조사 · 교육 홍보사업**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매년 정기적인 조사 및 교육, 홍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사업들 중에서 노인대학 내용을 보니까 특이한 강의들이 보이는데,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만의 차별화된 강의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총 50여 개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모두 동구노인대학만의 고유한 특성이 담겨있는 우수한 강의들이지만 그중 대표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작년에 신규 개설한 과목인 '아랑고고장구'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랑고고장구는 대중가요와 품바, 전통악기 장구를 접목한 퓨전 악기로 대구 내 노인복지관 중 유일하게 동구노인대학만이 운영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Q. 교육사업 말고도 여러 행사들도 기획하시는 것 같던데 매년 어떤 행사들을 개최하시나요?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하여 '하하호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2월에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한 학습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700명 이상의 어르신과 동구지역주민, 지역사회 후원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복지관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 행사 및 김장나누기행사, 명절 함박복나누기행사, 소원수리우체통, 1 · 3세대통합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Q.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데 올해는 애석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방법도 모색하셨다고요?

① 유튜브 노인대학 "놀면 뭐하노? 집에서 즐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증가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에서 '놀면 뭐하노? 집에서 즐기자! 우리집 노인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복지관에 직접 오지 않아도 복지관 소식과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편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뿌듯하였습니다.

②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한 '사랑 듬뿍 도시락' 제공

지역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결식우려로 매주 수요일 150명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차선책으로 실시한 도시락 전달(대체식 제공사업) 사업이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드시던 메뉴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코로나 블루'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과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바질키트 및 희망백신(건강음료외 간식)을 만들어 가정에 전달하는 마음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버이날을 기념해 방역물품과 카네이션을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방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복지관의 모든 사업들을 활기차게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교육사업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복지관 곳곳에서 신나는 음악 소리와 시끌벅적한 웃음을 기대하고 있죠.

또한 경로식당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였는데 경로식당운영 재개를 통해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경로당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 그분들을 돕는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구문화재단 **편집실**

2020 마음방역사업

사랑의 도시락 전달 사업

학습발표회

남녀노소 모두의 추억이 깃든
동촌유원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동촌유원지가 최근 언택트(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도 다양한 동촌유원지에 대해 알아보자.

대구시 동쪽, 동구 효목동에 조성된 금호강변에 있는 동촌유원지. 일제강점기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1965년 대구에서 최초로 유원지로 결정되었다. 동쪽과 서쪽에는 금호강변과 맞닿은 수직의 절벽이 높이 솟아 절경을 이루고, 그 사이에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고, 멀리 대구의 주산인 팔공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다. 그 옛날 동촌유원지 금호강은 겨울철에 얼음이 두껍게 얼어 썰매나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고, 여름철에는 수영장, 유기장, 오리배 · 유람선 놀이로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동촌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주변 경관을 조망하며 즐길 수 있었다.

여전히 각종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는 동촌유원지는 아직도 많은 대구 시민들에게 휴식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수량이 많은 금호강에는 조교가 가설되어 있고 우아한 다리 이름을 가진 아양교가 걸쳐있다.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도로도 마련되어 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면 동촌역에서 내려 바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교통도 편리하다.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동촌유원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동촌유원지 한편에 마련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실록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들이 옷을 입는 풍경들을 볼 수 있다. 겨울에는 강물에 부서지는 햇빛들로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계절 내내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 여겨진다.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 역시 사람들을 끄는 매력 중 하나일 것. 동촌유원지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마련되어 있고, 그 앞 동촌유원지 명물 먹거리촌에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어 각종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1호선 동촌역을 나오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해맞이다리 역시 동촌유원지의 명물이다.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폭 8m, 길이 222m 사장교로 2011년 개통하였다. 동촌의 금호강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여 양쪽의 사람이 만나는 화합의 다리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다리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다리 위에는 마치 진짜인 듯 보이는 트릭아트가 만들어져 있다. 트릭아트는 동촌유원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해맞이다리다. 동촌유원지에 가게 된다면 꼭 이 해맞이 다리를 건너며 멋진 풍경을 즐기고 트릭아트와 함께 실감 나는 사진도 한 장 찍길 바란다.

동촌역에서 해맞이다리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해맞이 동

산. 이 곳은 동촌유원지에서 가장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팔공산 주능선이 한눈에 보이는 해맞이 동산은 매년 새해 첫날, 많은 동구 주민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행복과 희망을 소원하며 해맞이를 하는 곳이다. 동산 주변은 여러 갈래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고, 사계절 다양한 꽃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 잔디가 깔려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촌유원지에는 아양교부터 화랑교까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있어 늘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양교 근처에서 아양폭포를 만나볼 수 있다. 아양폭포는 높이 16m, 폭 35m 규모의 인공 암벽으로 만들어진 폭포다. 강변 경관과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기 위해 2009년 조성되었다. 아양폭포의 물줄기는 시민들의 건강, 행복, 사랑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아양 폭포 위로 올라가면 금호강 전경과 팔공산 전체를 관망하며 감상할 수 있는 아양루도 볼 수 있다.

비록 수상스포츠는 아니지만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동촌유원지에 마련되어 있다. 바로 오리배와 모터보트다. 소정의 이용료를 내고 탈 수 있는 오리배와 모터보트로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추억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촌유원지에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즐길 거리를 찾아볼 수 있다. 동구의 문화회관인 아양아트센터가 바로 그곳인데 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개관하였다. 지역민들의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건강 생활 문화의 공간으로 매월 다양한 공연이 열려 공연 · 예술 문화 관람의 기회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놀이기구들이 있는 유원지 뒤편으로 가면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만날 수 있다. 기상대는 2014년 신암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오면서 대구기상지청으로 승격되었다. 기상과학관은 기상 ·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기상과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옆으로는 조양회관과 망우당공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곳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곳이다. 조양회관은 3 · 1 운동 이후 서상일과 대구구락부 회원 등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민중과 청년을 계몽라고 민족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1922년 건립한 교육회관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서양식 근대건축물이다. 망우당공원은 홍의장군 곽재우를 기리지 위해 그의 호인 망우당을 공원이름으로 정했다. 공원 정상에는 임진왜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른, 위풍당당하게 말을 탄 장군의 동상이 있다. 인근에는 임란 때 왜적과 싸워 나라를 구한 영남의병 315위의 신위가 봉안된 임란호국영남충의단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서쪽 전시관에는 당시 조선과 왜군의 무기와 유품, 전시시작전도 등 각종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처럼 동촌유원지는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기도 하며, 우리가 가진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의 연애시절 데이트 장소이기도 한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동촌유원지가 최근 언택트(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디든 쉽게 갈 수 없는 요즘, 동촌유원지에서 비대면 관광을 하며 시대를 초월한 감성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동구문화재단 **편집실**

12 공연(행사) 현황표

● 기획공연 ● 대관 ● 전시 ● 안심도서관 ● 신천도서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 일상생활 속 자연을 담다 전(A관) ● 이천우 도예전(B관)	2 ● 일상생활 속 자연을 담다 전(A관) ● 이천우 도예전(B관)	3 ● 일상생활 속 자연을 담다 전(A관) ● 이천우 도예전(B관)	4 ● 일상생활 속 자연을 담다 전(A관) ● 이천우 도예전(B관)	5 ● 일상생활 속 자연을 담다 전(A관) ● 이천우 도예전(B관)
6 ● 일상생활 속 자연을 담다 전(A관) ● 이천우 도예전(B관)	7 무대 주간 점검	8 ● 2020 대구가톨릭대 회화과 졸업 작품 전	9 ● 2020 대구가톨릭대 회화과 졸업 작품 전	10 ● 2020 대구가톨릭대 회화과 졸업 작품 전	11 ● 2020 대구가톨릭대 회화과 졸업 작품 전	12 ● 2020 대구가톨릭대 회화과 졸업 작품 전 ● 신천도서관 문화예술놀이터 14:00~16:00
13 ● 2020 대구가톨릭대 회화과 졸업 작품 전	14 무대 주간 점검	15 ● 제13회 대한민국 국제 친환경현대미술대전 ● 2020년 동구자원봉사자 대회	16 ● 제13회 대한민국 국제 친환경현대미술대전	17 ● 제13회 대한민국 국제 친환경현대미술대전	18 ● 제13회 대한민국 국제 친환경현대미술대전 ● 국악낭독극 '소녀 강치를 만나다' 19:00	19 ● 제13회 대한민국 국제 친환경현대미술대전
20 ● 제13회 대한민국 국제 친환경현대미술대전	21 무대 주간 점검	22 ● 범어 겨울음악회 19:00	23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24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25 성탄절 ● 202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 손호영 김태우 호우주의보 콘서트 14:00 / 19:00	26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27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28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29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 문화가 있는 날 19:30	30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 2020 로얄팝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31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1 공연(행사) 현황표

● 기획공연 ● 대관 ● 전시 ● 안심도서관 ● 신천도서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신정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2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3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4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5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6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7 ● 20201 새해맞이 소 그림(牛) 전	8	9
10	11	12	13	14 ● 2021 동촌현대미술제	15 ● 2021 동촌현대미술제 ● 한문연 방방곡곡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30	16 ● 2021 동촌현대미술제
17 ● 2021 동촌현대미술제	18 ● 2021 동촌현대미술제	19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0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1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2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3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4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5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6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7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8 ● 2021 동촌현대미술제	29 ● 2021 동촌현대미술제 ● 2021년 신년음악회 19:30	30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2 공연(행사) 현황표

● 기획공연 ● 대관 ● 전시 ● 안심도서관 ● 신천도서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2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3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4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5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6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7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 기억, 그리움, 그림 전	8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9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10 2021 상반기 무대안전점검	11	12 설날	13
14	15 무대 주간 점검	16	17	18	19 ● 어린이 뮤지컬 타요와 하하호호 노래자랑	20 ● 어린이 뮤지컬 타요와 하하호호 노래자랑
21 ● 어린이 뮤지컬 타요와 하하호호 노래자랑	22 무대 주간 점검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23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24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 문화가 있는 날 19:30	25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 한밤의 인문학 콘서트 19:00	26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27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28 ● 2021 동촌핸드메이드 축제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겨울 대비 실내 코로나 대처법

겨울이 온다.
팬데믹 초기, 날씨가 더워지면 전파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더운 날씨가 사람들을 냉방이 잘 된 실내로 몰아넣은 탓이다. 밀폐된 공간에 밀집한 사람들, 코로나 19 전파의 최적 조건이다. 난방의 계절, 겨울이 우려되는 이유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 코로나 19 관련 대처법을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지프 앨런 교수에게 들었다.

창 열기 가장 쉽지만, 추울 땐 꺼려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컨대 교실이라면 20분에 한 번씩 완전히 환기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은 해줘야 한다.
앨런 교수는 "교실 창을 15cm 정도 열어둘 수 있다면 환기 효과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 창을 조금 연 채로 운행하면 도움이 된다.

환풍기 잘 쓰면 약이지만,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오염된 실내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장치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내 공기를 휘저어 순환시키는 용도라면 없느니만 못하다.

공기 청정기 창을 열기 힘든 건물이라면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공기 청정기가 대안일 수 있다. 실내 면적에 어울리는 용량이라면 시판중인 공기 청정기로 충분하다. 여과장치가 바이러스를 거를 만큼 촘촘하지 않다는 걸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홀로' 부유하지 않는다.
타액의 습기와 단백질, 염분 등과 뭉쳐있어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더라도 시중 청정기의 필터가 걸러낼 수 있다. 미국 냉난방 공조협회가 정한 필터 기준인 머브(MERV) 13등급 이상이면 충분하고, 11등급만 돼도 비말의 60%를 거를 수 있다.

주의할 것들 락스 등 살균제는 효과적이지만 용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온을 발생하는 청정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자외선 살균기는 자칫하면 피부 화상이나 시력을 손상할 수 있다.

코로나에 맞서는 데 요란한 첨단기술이나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감염 위험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다.

[출처] 겨울 대비 실내 코로나 대처법 | 이용재 기자

아양아트센터 기획

신축년(辛丑年) 새해맞이

'소(牛) 그림'展

2020.12.23.- 2021.1.7.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

DGCF 대구동구문화재단 Daegu dong-gu Cultural Foundation 아양아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24(효목동) 관람문의 (053)230-3312 관람시간 am10:00-pm7:00 http://www.ayangarts.or.kr